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12월 4주 차, 주간 동향]
李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53.2%(0.2%P↓)...
민주 44.5%(0.4%P↑), 국힘 35.7%(1.5%P↓)

엠바고
12월 29일(월)
08:00

(주)리얼미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8층 전화 : 02-548-4071(代) 8224(Fax)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조사기간 : 2025년 12월 24일(월) ~ 26일(금)
(공휴일 제외 4일간)
-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
- 조사방법 : 무선(100%) 자동응답
- 표본오차 : $\pm 2.2\%P$ (95% 신뢰수준)

(정당 지지도)

- 조사기간 : 2025년 12월 24일(수), 26일(금)
-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
- 조사방법 : 무선(100%) 자동응답
- 표본오차 : $\pm 3.1\%P$ (95% 신뢰수준)

▲ 제21대 대선에서 각 방송사와 여론조사기관들이 내놓은 예측 조사 가운데, 리얼미터의 예측 조사가 실제 득표율과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예측한 1~2위간 격차는 8.6%p로 실제 득표율에 따른 격차와 0.3%p 차이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조사기관	언론사	조사방법	조사규모	오차범위	1·2위간 격차 예측 차이	예측치		예측격차	실제득표율
						이	김		
리얼미터	더데일리	ARS	2,004명	$\pm 2.2\%P$	0.3%p	50.1	41.5	0.68	49.42
						49.2	41.7	0.22	49.42
넥스트리서치	MBN	전화면접	1,000명	$\pm 3.1\%P$	0.8%p	49.2	41.7	0.55	41.15
						49.2	41.7	0.55	41.15
메타보이스	JTBC	전화면접	12,000명	$\pm 0.9\%P$	2.9%p	50.6	39.4	1.18	49.42
						50.6	39.4	1.18	49.42
리서치엔리서치	채널A	전화면접	11,221명	$\pm 0.93\%P$	3.9%p	51.1	38.9	1.68	49.42
						51.1	38.9	2.25	41.15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임소스	방송3사	전화면접	80,146명	$\pm 0.8\%P$	4.1%p	51.7	39.3	2.28	49.42
						51.7	39.3	1.85	41.15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3.2%(0.2%P↓), 부정 42.2%(0.0%P-)

-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주 연속 미미한 하락을 보이며 7주 째 박스권 내 획보세를 유지
- 해수부 청사 개청식과 순직 공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등 현장 소통 행보,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및 환율 안정화 조치 등 민생·경제 정책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강행 처리, 특검 구형·압수수색 등 정치적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하락 압력이 커져 지지율은 획보세를 보임
- 긍정 평가, 광주·전라(3.6%P↑), 20대(6.1%P↑), 사무·관리/전문직(2.3%P↑), 농림어업(2.8%P↑), 학생(4.9%P↑)에서 상승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25일(목,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총 44,010명 통화 시도)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12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53.2%(매우 잘함 41.7%, 잘하는 편 11.5%)로, 지난주 12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0.2%P 소폭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42.2%(매우 잘못함 32.7%, 잘못하는 편 9.6%)로 변동이 없었으며, 긍정-부정 격차는 11.0%P로 약간 좁혀졌다. '잘 모름'은 4.6%.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2025년 12월 4주차 주간집계



• 의뢰 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 기관: 리얼미터 • 표본 수: 전국 만 18세 이상 2,009명 • 표본오차: $\pm 2.2\%P$ (95% 신뢰수준) • 응답률: 4.6%
• 조사 방법: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 조사 기간: 2025년 12월 22일(월) ~ 12월 26일(금) (공휴일 제외 4일간)

REALM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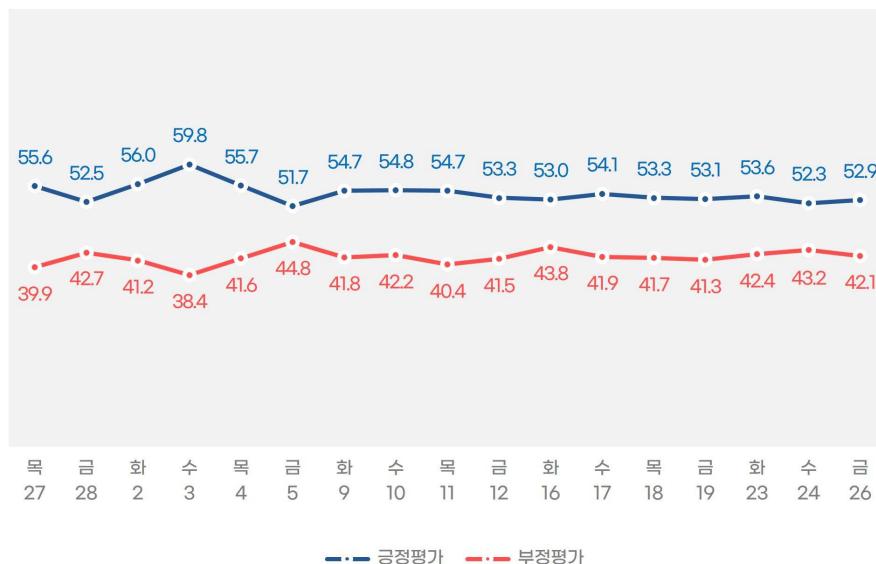
일간 지표로는 지난주 금요일(19일) 53.1%(부정 평가 41.3%)로 마감한 후, 23일(화)에는 53.6%(0.5%P↑), 부정 평가

42.4%), 24일(수)에는 52.3%(1.3%P↓, 부정 평가 43.2%), 26일(금)에는 52.9%(0.6%P↑, 부정 평가 42.1%)로 나타났다.

■ 2025년 12월 4주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일간 변화

단위: %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응답자 특성

- 권역별로 대구·경북(8.9%P↓, 41.1%→32.2%, 부정평가 61.6%), 부산·울산·경남(3.2%P↓, 50.1%→46.9%, 부정 평가 47.9%), 광주·전라(3.6%P↑, 73.6%→77.2%, 부정평가 18.6%), 대전·세종·충청(1.6%P↑, 51.8%→53.4%, 부정평가 42.2%), 인천·경기(1.6%P↑, 54.2%→55.8%, 부정평가 39.9%), 서울(1.1%P↑, 50.4%→51.5%, 부정평가 44.7%)
- 성별로 여성(1.0%P↓, 55.9%→54.9%, 부정평가 39.5%)
- 연령대별로 50대(5.7%P↓, 69.2%→63.5%, 부정평가 34.0%), 70대 이상(1.5%P↓, 48.5%→47.0%, 부정평가 44.9%), 60대(1.2%P↓, 53.6%→52.4%, 부정평가 42.7%), 20대(6.1%P↑, 29.1%→35.2%, 부정평가 58.7%), 40 대(1.7%P↑, 67.0%→68.7%, 부정평가 27.4%)
- 이념성향별로 보수층(2.0%P↓, 28.4%→26.4%, 부정평가 70.6%), 진보층(1.9%P↑, 80.5%→82.4%, 부정평가 16.8%)
- 직업별로 가정주부(3.3%P↓, 56.9%→53.6%, 부정평가 41.9%), 무직/은퇴/기타(2.6%P↓, 48.6%→46.0%, 부정평가 45.0%), 자영업(1.5%P↓, 53.9%→52.4%, 부정평가 44.8%),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1.4%P↓, 56.7%→55.3%, 부정평가 39.3%), 학생(4.9%P↑, 33.5%→38.4%, 부정평가 54.8%), 사무/관리/전문직(2.3%P↑, 57.4%→59.7%, 부정 평가 37.8%), 농림어업(2.8%P↑, 55.1%→57.9%, 부정평가 40.8%)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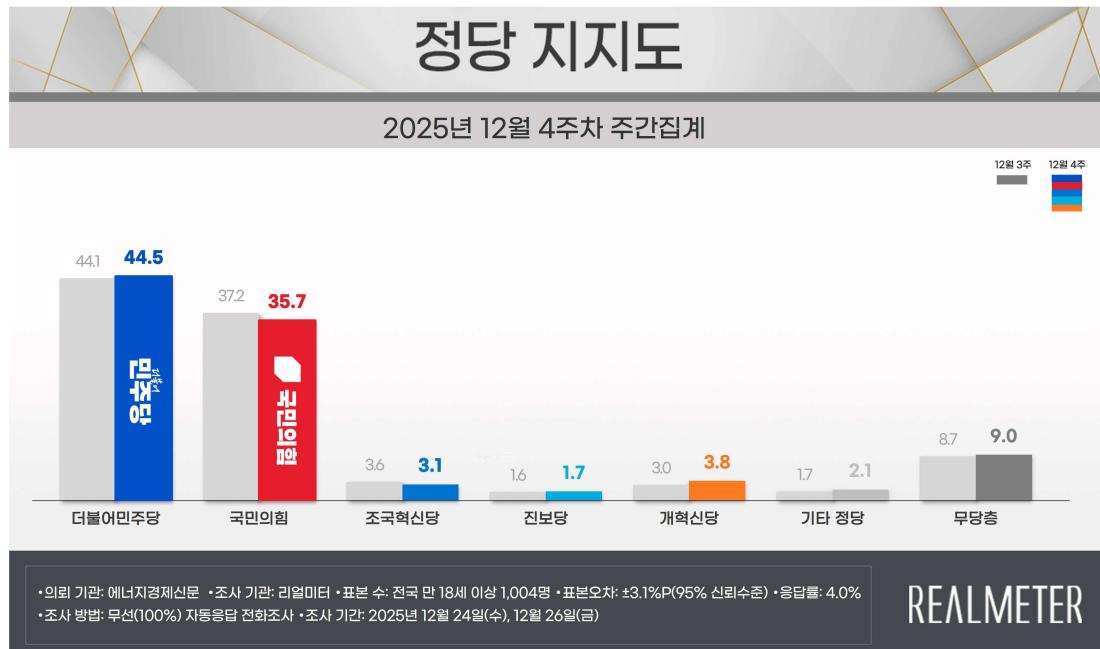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44.5%(0.4%P↑)**, 국민의힘 **35.7%(1.5%P↓)**, 개혁신당 **3.8%(0.8%P↑)**, 조국혁신당 **3.1%(0.5%P↓)**, 진보당 **1.7%(0.1%P↑)**, 기타 정당 **2.1%(0.4%P↑)**, 무당층 **9.0%(0.3%P↑)**

-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반등했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며 앙당 격차는 전주 6.9%P에서 8.8%P로 벌어짐.
-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와 특검 주도로 진보층과 호남 지역 기반의 여권 결속력을 강화했으나, 김병기 의원 비위 논란 확산으로 추가 상승이 제약되어 소폭 상승하는데 그침.
-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의 필리버스터에도 입법 저지에 실패하며 야당의 무기력함이 부각되었고, 통일교 특검 관련 내부 갈등이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12월 24일(수)와 26일(금)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총 25,383명 통화 시도)을 대상으로 집계된 12월 4주 차 정당 지지도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3주차 주간 집계 대비 0.4%P 상승한 44.5%를 기록했고, 국민의 힘은 1.5%P 하락한 35.7%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개혁신당은 0.8%P 높아진 3.8%, 조국혁신당은 0.5%P 낮아진 3.1%, 진보당은 0.1%P 높아진 1.7%, 기타 정당은 0.4%P 높아진 2.1%를 기록하였다. 무당층은 0.3%P 증가한 9.0%로 조사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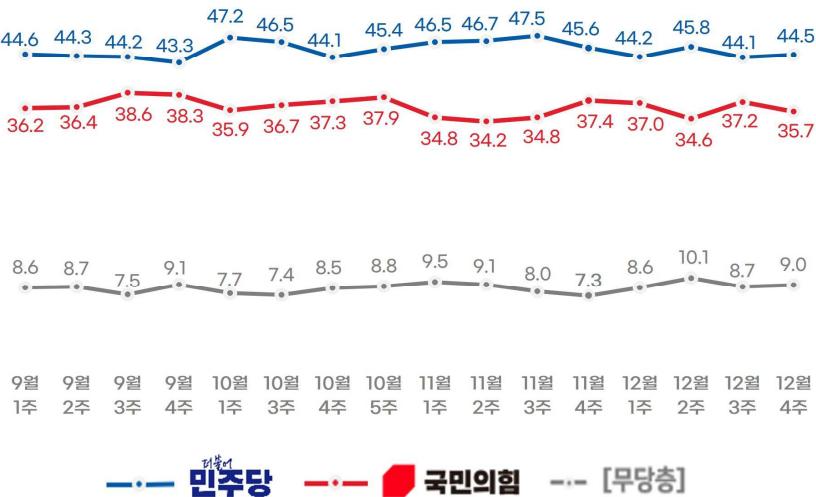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라(10.9%P↑), 서울(6.4%P↑), 대전·세종·충청(3.6%P↑), 70대 이상(3.9%P↑), 40대(3.8%P↑), 진보층(2.6%P↑), 농림어업(17.3%P↑)에서 상승, 대구·경북(9.7%P↓), 부산·울산·경남(10.2%P↓), 30대(2.1%P↓), 50대(2.9%P↓), 보수층(3.5%P↓), 학생(3.7%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0%P↓)에서는 하락
- 국민의힘, 광주·전라(10.2%P↓), 대전·세종·충청(6.6%P↓), 서울(3.5%P↓), 인천·경기(2.2%P↓), 남성(5.2%P↓), 30대(7.4%P↓), 20대

(7.0%P↓), 70대 이상(4.5%P↓), 중도층(2.3%P↓), 농림어업(7.0%P↓), 사무/관리/전문직(4.6%P↓), 무직/은퇴/기타(2.7%P↓)에서 하락, 부산·울산·경남(5.0%P↑), 대구·경북(9.6%P↑), 여성(2.1%P↑), 60대(3.2%P↑), 50대(5.1%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1%P↑), 자영업(2.7%P↑)에서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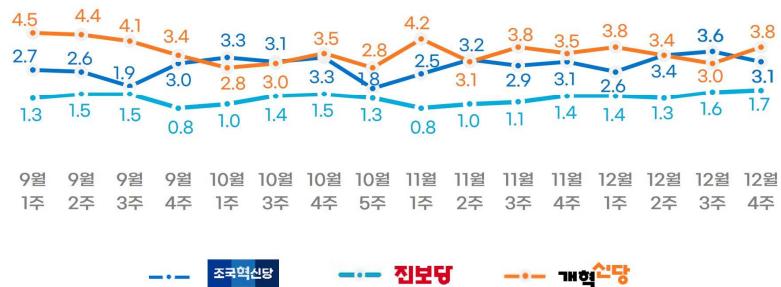
■ 2025년 12월 4주차

정당 지지도 1. 주간 변화 단위: %



■ 2025년 12월 4주차

정당 지지도 II. 주간 변화 단위: %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특성별 변화

- 권역별로 광주·전라(10.9%P↑, 64.5%→75.4%), 서울(6.4%P↑, 35.9%→42.3%), 대전·세종·충청(3.6%P↑, 43.9%→47.5%), 인천·경기(1.6%P↑, 44.9%→46.5%), 부산·울산·경남(10.2%P↓, 44.7%→34.5%), 대구·경북(9.7%P↓, 31.4%→21.7%)
- 성별로 남성(1.1%P↑, 40.1%→41.2%)
- 연령대별로 70대 이상(3.9%P↑, 38.2%→42.1%), 40대(3.8%P↑, 60.6%→64.4%), 20대(1.4%P↑, 22.0%→23.4%), 50대(2.9%P↓, 55.7%→52.8%), 30대(2.1%P↓, 38.1%→36.0%), 60대(1.3%P↓, 44.8%→43.5%)
- 이념성향별로 진보층(2.6%P↑, 72.3%→74.9%), 중도층(1.5%P↑, 45.2%→46.7%), 보수층(3.5%P↓, 23.5%→20.0%)
- 직업별로 농림어업(17.3%P↑, 29.2%→46.5%), 가정주부(1.8%P↑, 43.4%→45.2%), 사무/관리/전문직(1.8%P↑, 48.9%→50.7%),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0%P↓, 52.0%→47.0%), 자영업(1.5%P↓, 48.8%→47.3%), 학생(3.7%P↓, 27.0%→23.3%)

국민의힘 응답자 특성별 변화

- 권역별로 광주·전라(10.2%P↓, 20.8%→10.6%), 대전·세종·충청(6.6%P↓, 44.0%→37.4%), 서울(3.5%P↓, 39.7%→36.2%), 인천·경기(2.2%P↓, 36.7%→34.5%), 대구·경북(9.6%P↑, 45.9%→55.5%), 부산·울산·경남(5.0%P↑, 39.2%→44.2%)
- 성별로 남성(5.2%P↓, 42.8%→37.6%), 여성(2.1%P↑, 31.8%→33.9%)
- 연령대별로 30대(7.4%P↓, 41.6%→34.2%), 20대(7.0%P↓, 51.1%→44.1%), 70대 이상(4.5%P↓, 43.2%→38.7%), 40대(1.2%P↓, 27.0%→25.8%), 50대(5.1%P↑, 26.8%→31.9%), 60대(3.2%P↑, 37.9%→41.1%)
- 이념성향별로 중도층(2.3%P↓, 34.9%→32.6%), 보수층(1.0%P↓, 65.3%→64.3%)
- 직업별로 농림어업(7.0%P↓, 38.8%→31.8%), 사무/관리/전문직(4.6%P↓, 35.4%→30.8%), 무직/은퇴/기타(2.7%P↓, 40.1%→37.4%), 학생(2.0%P↓, 45.9%→43.9%), 자영업(2.7%P↑, 39.2%→41.9%),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1%P↑, 30.3%→32.4%)

무당층 응답자 특성별 변화

-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3.9%P↑, 7.5%→11.4%), 광주·전라(1.4%P↑, 4.1%→5.5%), 인천·경기(1.3%P↑, 8.6%→9.9%), 대구·경북(3.2%P↓, 11.7%→8.5%), 서울(1.9%P↓, 12.0%→10.1%)
- 성별로 남성(1.3%P↑, 7.5%→8.8%)
- 연령대별로 20대(4.1%P↑, 9.5%→13.6%), 30대(1.9%P↑, 9.9%→11.8%), 40대(3.1%P↓, 7.1%→4.0%)
- 이념성향별로 중도층(1.5%P↑, 9.3%→10.8%)
- 직업별로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4%P↑, 8.3%→10.7%), 무직/은퇴/기타(2.3%P↑, 11.7%→14.0%), 사무/관리/전문직(2.1%P↑, 5.8%→7.9%), 농림어업(9.9%P↓, 19.0%→9.1%), 학생(1.4%P↓, 12.3%→10.9%), 자영업(2.6%P↓, 6.5%→3.9%)

◆ 정국 이슈 및 언론 보도 ◆

■ 12월 22일(월) : 민주, 통일교 특검 여야 수용, 내란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 시작 등 여야 대치 심화

△ 검찰, '국힘 공천게이트' 명태균·김영선에 각 징역 6년, 5년 구형 △ 민주당, '통일교 특검' 받는다…“여야 누구든 예외 없이 포함하자” △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 쿠팡 미 본사거래 탈세도 본다…국세청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 △ 내년 1분기 전기요금도 일단 동결… 정부, 산업용 제도 개편 속도내나 △ 강훈식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이용자 불편 가중"…국토부 점검 지시 △ 김건희 특검, '가방 전달 의혹' 김기현 소환 조사 △ 여야, 통일교 특검법 각자 발의…추천방식 등 추후 협의 △ 내란재판부 설치법 상정…장동혁 필리버스터 시작 △ 이 대통령, 대한노인회 청와대 초정 오찬 △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논쟁 재점화 △ 민주당, 2차 종합특검법 발의 △ 민주, '내란재판부법 수정안' 당론 채택…전남 판사 추천위 구성 않기로 △ 국민의힘, 이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김민석 총리 발언을 두고 '독재' 총공세 △ '내란재판부·허위 정보근절법' 강행처리 돌입에…국민의힘 "공포정치" △ 정진석 "계엄하면 시민들 거리 나온다 만류"…尹 "설득말라" △ 쿠팡 전방위 세무조사…미국 본사까지

■ 12월 23일(화) : 이 대통령 해양수산부 관련 행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장동혁 대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 이 대통령 “후임 해수부 장관, 가급적 부산서 인재 찾을 것” △ 이 대통령, 해수부 업무보고 △ 이재명 대통령, 해양수산부 청사 개청식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 △ 신한카드, 19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상설특검, 쿠팡 압수수색…‘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본격화 △ '제1야당 대표 현정사 첫 필버' 장동혁, 20시간 넘겨 역대 최장 △ 여야 원내대표 회동 △ 민주당 김병기, '호텔 고가 숙박권' 논란…'직절치 못했다, 비용 반납' △ 천하람 "與 '통일교 특검' 수용 환영…김병기, 당장 오늘 만나자"

■ 12월 24일(수) :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환율 최대폭 급락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기반 배상·지원으로 전환 △ '입틀막' 논란 정보통신망법,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 △ 유류세 인하 2달·차 개소세 인하 6달 연장 △ '국장 복귀' 서학개미엔 양도세 비과세…복귀계좌 신설 △ 이 대통령, 희귀질환 환우 가족 현장 소통 △ 서학개미, 내년 1분기에 팔면 양도세 100% 감면 △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 △ 법원, 김용현 구속 연장 결정 △ 국힘 "季대통령, 강훈식 대전·충남통합단체장 만들려…정치적 목적" △ 민주, 지선겨냥 '충청특위' 첫 회의… 대전 충남통합 주도해온 국힘 '심기불편' △ 민주, '정보통신망법' 강행…'표현의 자유 위축' 비판 △ 환율, 개장 직후 외환당국 고강도 구두개입에 급락…정부 '경고'에 1,440대로 뚫…3년 1개월만에 최대폭 △ 2020년 쿠팡 노동자 사망, 5건 중 4건서 '축소·회피' 정황

■ 12월 26일(금) :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서해 피격 무죄 판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논란 확산

△ 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등' 혐의 총 징역 10년 구형 △ 경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체포영장 집행 △ 쿠팡 "정부 지시 따라 유출자 자백 받고 기기 회수" △ 공수처, '직무유기'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 정청래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동시 추진" △ '서해 피격'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 김은혜 "10·15 부동산 대책 위법"…주민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 정청래, 김병기 비위 의혹에 "국민께 죄송…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 특검,尹 '대선 전 허위사실 공표' 추가 기소 △ 홍준표, '국힘에 통일교 특검 받지마…' 국힘 항한 경고 △ '공항 의전·특혜 진료 의혹'까지…김병기 비위 논란 일파만파…급기야 거취 압박까지 △ 이 대통령, 군·소방·경찰 순직 공직자 유가족과 오찬 △ 민주,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 발의…특검 수용 나흘만 △ 조국 "민주,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李대통령 소신 따라주길" △ "제3자 추천, 신천지 조사해야"…'방탄용 특검'

이번 주간 집계는 ①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12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25일(목,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총 44,010명 통화 시도)이 응답을 완료, 4.6%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다. ②정당 지지도 조사는 12월 24일(수)와 26일(금)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총 25,383명 통화 시도)이 응답을 완료, 4.0%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결기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통계보정은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램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리얼미터 트위터, 페이스북 : @realmeter

- ◆ 리얼미터의 정례 전국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응답 방식은 미국 캘럽, 라스무센 등 미국 여론조사 회사도 사용하고 있는 전화조사의 유용한 한 방식입니다. 번호를 직접 누르는 ARS의 비밀투표 방식은 응답자가 주변 사람을 의식해 자신의 솔직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솔한 응답을 내보일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고, 조사자의 주관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를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 ARS 조사 관련해서는 한국조사협회(KORA: 前 한국마케팅조사협회)가 지난 2014년 7월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실제 여전히 소속 회원사들이 ARS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소속 회원사들이 밝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의안 채택과는 상반되게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KORA 회원사의 20% 이상이 ARS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 반면 한국정치조사협회(<http://kopra.kr>) 회원들은 선진국의 유명 여론조사기관처럼 ARS 조사방법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전화면접 조사방법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ARS 조사도 나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사과정과 통계과정에서의 보완 과정을 거치게 되면 효율적인 조사방법이기 때문에, 선진국 유명 회사들이 조사를 채택하고 있고, KOPRA 회원사들 역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 향후 리얼미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조사 등 신기술을 활용한 조사도 과감히 도입하여, 기존 매체를 통한 조사방법의 한계를 극복한 선도 조사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